

돌아온 광고인 1/5

1989년, 신입사원 시절.

저 광고 봤어?
역시 메이저는 다르네.

그들은 광고를 계속했다.

나는 전략과 연구,
강의와 정책을 했고
정치도 봤다. 책도 썼다.

다른 현장에서
선택의 구조를 배웠다.

광고도 다시
해보실래요?

AI, 너로 어디까지
할 수 있지?

거의 30년 만에?

판이 바뀌었다 2/5

30년 만에 돌아온 광고판.

어? 내가 알던 광고는 어디 갔지?

TV·인쇄물·검색창이 멀어지고 있었다.

어디가 잘해?

뭘 선택해야 해?

사람들은 AI에게 묻고,
AI는 업체들을 비교했다.

너는 업체를 추천할 때
뭘 보니?

질문과 근거부터
봅니다.

이거 전략인데? 3 / 5



한 달의 실험 4/5

첫 1주. 방법론을 세웠다.

전략형 GEO.
Source-First GEO.

고객 질문 여정도요!

다음 2주. 방법론과 근거를
사이트·책·기사로 공개했다.

누구나 확인할
수 있게 만들자.

실제 답변도 계속
확인할게요.

좋습니다.
질문을 주세요.

한 달 됐다.
다시 물어보자.

